

구분무 LG회장, 고객가치 경영 분주

도요타자동차 방문에 Toyota Way 현장체험 ... CEO와는 릴레이 대화

구분무 LG그룹 회장이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(CEO)들과 함께 일본 도요타자동차를 찾아 혁신의 현장을 몸소 체험하는가 하면 CEO 및 사업본부장과의 릴레이 대화에 나서는 등 자신의 경영철학인 <고객가치 경영> 실천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.

LG에 따르면, 구분무 회장은 2007년 들어 연초부터 매월 3-4 차례에 걸쳐 LG전자, LG필립스LCD, LG화학, LG생명과학, LG텔레콤 등 주요 계열사 CEO 및 사업본부장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릴레이 대화에 나서고 있다.

릴레이 대화에서는 CEO로부터 2007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게 될 사업전략과 고객가치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듣고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, 특히 <고객가치>의 증진에 역점을 둘 것을 독려하고 있다.

4월 25-26일에는 강유식 LG 부회장, 구분준 LG상사 부회장, 김반석 LG화학 사장, 권영수 LG필립스LCD 사장 등 최고경영진 20여명과 함께 일본 도요타자동차를 방문해 Toyota Way 현장을 체험했다.

2일간 도요타의 주사업장인 모토마치 공장과 협력회사인 기후차제공업의 공장을 시찰하고 조 후지오 도요타 회장과 함께 <도요타 웨이와 최고경영진의 역할>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.

구분무 회장은 “많은 기업들이 도요타 배우기에 나섰지만 정작 도요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”면서 “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은 시스템과 제도 뿐만 아니라 철저한 <고객중시>의 조직철학과 올바른 가치체계를 조직에 확고히 뿌리내리게 하는 것”이라고 지적하고 CEO의 역할을 강조했다.

5월말에는 폴란드 LCD클러스터 준공식에 참석해 LG전자, LG필립스LCD, LG화학, LG이노텍 등 4개 계열사와 동서전자 등 3개 협력기업이 참여해 LCD부품에서 LCD모듈, LCD TV까지 LCD산업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한 총 45만평의 LCD클러스터 단지를 살펴보고 유럽의 디스플레이 사업전략을 점검할 계획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7/05/02>